

대심도 철도시설 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피난 안전성 연구

김수연*, 임형석[†]

초 톡 대도심 속 지하역사는 점차 대형화 및 심도가 깊어지는 추세이다.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광역급행철도(GTX) 노선이 추진 중이며 현재 GTX-A노선이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. GTX는 평균 심도 40m 이상의 대심도 노선으로 계획되며 대심도의 지하공간은 재난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피난/구간 활동에 어려움으로 사망자 발생확률이 높다. 본 연구에서는 대심도 역사를 선정하여, 피난동선 및 피난시간을 분석하였고 대심도 역사의 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피난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였다.

본 연구는 국토교통부/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(과제번호 RS-2023-00238458)

† 교신저자: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 경영연구처(LHS7708.korail.com)

*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 경영연구처